

#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의 산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 지정

- 금융투자협회의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금융위 의결
- CD수익률 산출방식이 실거래 및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방식으로 변경되며, 10.2일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산출 예정

## 1 금융투자협회의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의결

금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다.

앞서 금융위원회는 '21.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 한 바 있으며, 금일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·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.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\*하게 된다.

\*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①중요지표 선정, ②산출기관(금투협회) 지정, ③산출업무규정(금투협회 내부 규정) 승인이 모두 필요

## 2 CD수익률 산출방식·체계 변경

CD수익률 산출방식이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**단계별 산출방식(Waterfall)**으로 **변경**되어 CD수익률이 보다 신뢰성있게 산출될 예정이다.

### < 단계별 산출방식(Waterfall) >

- **1단계** : 기초자료 제출기관\*의 적격거래\*\*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
  - \* 기초수익률 제출업무 수행을 위해 금투협회가 선정한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
  - \*\* 시중은행 발행 만기 80일~100일 CD를 증권사와 100억원 이상 단위로 거래된 계약
- **2단계** : 인접 발행·유통거래를 참고하여 기초수익률 산출
- **3단계** :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(기준금리, 은행금리 등 유사채권 수익률)을 적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

한편,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日 2회 산출·공시(12:00, 16:30)에서 日 1회 산출·공시(16:30)로 변경되고, 시장 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(산·기은) CD수익률 산출·공시는 중단된다.

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신뢰성·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**중요지표관리위원회**를 두어야 하며, 기초자료제출기관(증권사)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**중요지표**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,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일반투자자들에게 **중요지표 설명서**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\*하여야 한다.

\* 기존 상품계약 설명서에 중요지표 설명을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(단, 설명의무는 존재)

### <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>

- 수익률 산출방식 : (現)증권사 자율 → (改)호가 제출방식 구체화\*(산출업무규정)
  - \* 1단계 : 표준만기(80일~100일) 발행물 수익률, 2단계 : 인접 발행·유통 수익률, 3단계 : 전문가적 판단
- 설명서 및 내부통제 : (現)자율 → (改)설명 의무 신설,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(증권사), 지표관리위원회 도입(협회) 등
- 위반시 : (現)자율규제(협회 시행세칙) → (改)법상 제재(금융거래지표법 §18[벌칙], §19[과태료])

### 3 향후 계획

오늘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CD수익률이 산출되므로, 산출방식의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약 3개월의 **적용 유예기간** (6.22일~10.1일)을 **설정**하였다.

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의 효력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**10.2일**부터 **발생**하며, 동 유예기간동안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표준 설명서 마련,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한편, 제도가 새롭게 개편·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자료제출기관(증권사)에 대하여는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**제도,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**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고상범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주 (02-2100-2851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선오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박재영 (02-3145-7590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국 장	김지택 (02-2003-9019)
		담당자	파트장	이한구 (02-2003-9293)